

“광주FC 검증의 시간 아니라 ‘강팀’ 입증할 시즌”



광주FC
동계훈련

태국 코사무이=김여울 기자

“원클럽맨” 이민기가 주장 완장을 차고 광주FC 변화의 시즌을 이끈다.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K리그 화제의 팀이다. 이정호 감독이 처음 지휘봉을 든 2022시즌에 K리그2 우승을 차지한 광주는 다음 해 K리그1에서 3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에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ACLE)에서 활약을 펼치며 동아시아그룹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눈길 끄는 시간을 보내왔던 광주지만 올 시즌에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정효철’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적하면서 팀 안팎으로 격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만큼 2016년 광주에서 프로에 데뷔해 팀을 지키고 있는 ‘원클럽맨’ 이민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민기는 올 시즌 ‘주장’까지 맡으면서 어깨가 무겁다.

이민기는 “광주 하면 이민기, 이민기 하면 광주가 됐다. 감독님께서 주장을 하라고 하셨을 때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걱정은 됐다. 그래도 3년 동안 (안)영구 형이 주장하는 것을 많이 봤고, 팀 시스템 안에서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사이에서 가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감독님이 ‘광주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해줄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원클럽맨으로 주장까

주장 이민기 “다른 구단 팬들도 즐길 광주의 축구 보일 것”
가정 이루고 안정감… ‘광주 열성팬’ 가수 노라조 응원 감사

지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는 성격이 온화하고 흐르는 물같은 사람인데 강현이가 쓴소리도 잘하고 목소리도 많이 낸다. 팀에 2000년대생 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진호가 어린 친구들을 잘 이끌 것 같다. 조합이 굉장히 좋다”며 부주장 이강현과 김진호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지난 시즌 아쉬움을 털어내고 올 시즌을 ‘강팀’ 원년으로 만드는 게 이민기의 목표다.

이민기는 “지난 시즌 많은 일이 있었다. 개인이나 팀 모두 힘든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구단, 선수, 코칭 스태프가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이를 디딤돌로 삼아서 계속 싸워 나가려고 해서 잔류를 할 수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시즌 초에 무릎에 계속 물이 차서 참다가 결국 수술을 하게 됐다. 축구 인생에서 처음 수술했고, 오래 쉬어본 것도 처음이었는데 선수들 뛰는 것 보면서 미안했다. 부상으로 빠질 때 팀이 연패 상황이라 마음이 더 무거웠다. 또 선수로서 제일 행복한 게 잔디를 밟을 때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고 지난 시즌을 돌아봤다.

이어 그는 “광주에 오래 있으면서 최근 3년 정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감독님,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믿고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성장할 것이다”며 “3위를 했을 때 돌풍이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강팀

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시즌이었다고 생각했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 광주가 무언가를 계속 증명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광주FC하면 ‘강팀’ 이미지가 자리 잡게 하는 게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언급했다.

주장 완장의 무게까지 더해진 2025시즌이지만 그에게는 특급 지원군이 있다. 이민기는 지난겨울 결혼식을 올리면서 든든한 가족을 얻었다. 이민기와 인연이 있는 가수 노라조도 광주 열성팬으로 여러 부분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민기는 “결혼한 형들이 안정감이 생기고 책임감도 달라진다고 했었는데 진짜 결혼을 하니까 심리적인, 정신적인 안정감이 생겼다. 든든하면서 책임감도 많이 생긴다. 응원이 되고 힘이 된다”며 “(조빈과) 인연이 된 게 4년 정도다.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성격상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경기 이겼을 때, 안 좋았을 때 늘 연락을 주셨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우리 팀에 빠져 드셨고, 밥을 먹다가 응원가 이야기도 나오게 됐다. 당일 치기로 응원 오고, 아침 원정도 오시고 정말 대단하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 팀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민기는 “결혼한 형들이 안정감이 생기고 책임감도 달라진다고 했었는데 진짜 결혼을 하니까 심리적인, 정신적인 안정감이 생겼다. 든든하면서 책임감도 많이 생긴다. 응원이 되고 힘이 된다”며 “(조빈과) 인연이 된 게 4년 정도다.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성격상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경기 이겼을 때, 안 좋았을 때 늘 연락을 주셨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우리 팀에 빠져 드셨고, 밥을 먹다가 응원가 이야기도 나오게 됐다. 당일 치기로 응원 오고, 아침 원정도 오시고 정말 대단하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 팀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광주 원클럽맨 이민기가 2025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순위 싸움 전면에 선다.

는 이민기는 ‘더 빨라진 템포’로 승리와 팬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각오다.

이민기는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다. 올해는 광주 팬분들은 물론 다른 구단 팬분들까지도 광주 축구를 더 재미있어 할 것 같다. 우리랑 붙는 팀들은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감독님 믿고 따라가고 있다”며 “팬분들의 응원과 열정

덕분에 우리가 항상 꿈을 꾸고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 우리 꿈은 더 크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경기장 찾아오셔서 많은 응원과 성원 보내주시면 많은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같이 꿈꾸고 도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팬들과의 뜨거운 동행을 예고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 헤이스 오니 ‘I’ 아사니도 변하네

선수단 분위기 메이커 역할 특출
외국인 선수들 환상 호흡 기대감

돌아온 헤이스가 광주FC의 질주에 날개를 달았다.

광주는 태국 코사무이에서 1차 동계 훈련을 하며 2025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선수단의 변화가 많은 이번 겨울이지만 광주는 밝은 분위기에서 손발을 맞추고 있다. 친정으로 복귀한 헤이스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얼마 전 헤이스는 아사니와 동료들의 눈길을 끄는 ‘국가대항전’을 치렀다.

브라질 대표 헤이스와 알바니아 대표 아사니의 1대 1 축구 게임.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었지만 두 선수의 불타는 승부욕 덕분에 흥미진진한 승부가 펼쳐졌다. 두 선수의 한 치 양보 없는 승부를 보기 위해 선수들은 관중으로 변신했다.

‘저녁 내기’로 전개됐던 승부에서 아사니가 승자가 되자, 헤이스가 급히 물을 바꿔 2세트 승부를 제안했다.

판도 커졌다. 구경하던 문민서와 최혁순 통역까지 가세해 숨막히는 2대 2 승부가 펼쳐졌다. 두 번째 경기는 헤이스 승리로 끝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저녁을 산 셈 치기로 했다.

두 선수의 흥미로운 승부에 이날 광주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는 올 시즌 강팀 도약을 꿈꾸는 광주의 2025시즌에 중요한 조각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초반 출장 기회를 얻지 못했던 아사니는 이를 갈고 기회를 기다렸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히트상품이 됐다. 그는 7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 후보가 됐다.

올 시즌에도 광주가 아챔일정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로테이션 가동이 중요한 상황. 헤이스까지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정호 감독의 시즌 운영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경기뿐만 아니라 팀워크에서도 헤이스는 중요한 조각이다.

외향적인 성격의 헤이스가 가세하면서 내향적인 아사니의 표정도 달라졌다. 브루노도 ‘선배’ 헤이스를 믿고 따르면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성장하는 등 헤이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식사시간에도 헤이스는 국내 선수 같다. 그가 잊지 않고 챙기는 반찬이 고추다. “맛있다”며 고추를 잔뜩 챙기는 그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기도 하는 등 한국 문화에 스스럼없다. K리그 5년 차다운 한국말 실력도 과시한다.

최혁순 통역은 “외향적인 선수가 오니까 아사니도 외향적으로 되는 것 같다. 2주밖에 안 됐는데 둘이 너무 친해졌다. 쉬는 날에도 둘이 알아서 어울려



광주로 돌아온 헤이스가 태국 코사무이 동계훈련에서 아사니와 축구 게임을 하고 있다.

놓고 그래서 내가 편해졌다(웃음). 외국인 선수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나이로도 고참이라서 형이라고 하면서 따르다”며 “고추 먹고 김치 먹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내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말했다.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된 이정호 감독도 ‘헤이스 효과’에 반색하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작년부터 헤이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헤이스가 리더십도 있고 말도 잘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잘 이끌 것이라 기대했다. 아사니와 브루노의 얼굴이 좋아졌다”며 “기량적으로도 헤이

스가 안정감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사니와 함께 광주 화력을 이끌어가게 된 헤이스는 “아사니는 좋은 선수다.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가끔 외식도 하고 함께하는데 좋은 선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다시 동료들과 광주에서 함께 해서 정말 기쁘다. 익숙한 팀이지만 새로운 선수들도 있으니까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 팀에서 아사니의 이야기를 이어 나가게 됐다.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이래서, 또 우승하고 싶다”

보너스·경충 뒀 연봉에 지급 ‘두둑’…모기업 특급대우까지

이래서 또 우승하고 싶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챔피언스필드를 중심으로 콕, 오키나와 등지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겨울을 보냈던 선수들은 25일부터 3월 5일까지 미국 아바인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른다.

이범호 감독이 이끄는 KIA 스프링캠프 선수단은 22·23일 이틀에 걸쳐 1차 캠프지인 아바인으로 떠났다.

선수들은 각자 다른 방식과 장소에서 워밍업을 했지만 캠프에 임하는 마음은 같다. “또 우승하고 싶다”라는 같은 생각으로 선수들은 2025시즌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일단 ‘우승’이라는 자체가 특별했다.

KIA는 이번호 감독 체제로 새로 출범했던 지난 시즌 정규시즌을 1위로 마무리했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시리즈에서도 4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하며 ‘불패신화’를 이고 V12에도 성공했다.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열 정도로 뜨거웠던 팬들의 환호 속에 37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기억은 짜릿했다.

가을 잔치, 우승을 목표로 달려왔던 선수들

에게는 꿈을 이룬 2024년이었고 우승 결과는 달랐다.

KIA 선수단이 두 조로 나눠 아바인으로 출국한 이유는 ‘비즈니스석’ 때문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선수단 모두 비즈니스석으로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우승팀 대우를 해준 것이다. 10시간을 넘게 이동해야 하는 선수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미국으로 향하면서 ‘연패’ 의지를 다졌다.

우승으로 선수단 지급도 두둑해졌다. KIA는 KBO로 받은 우승 상금에 구단의 보너스를 더해 우승 보너스를 선수단에 지급했다. 활약 여부에 따라 등급을 나눈 KIA는 퓨처스 선수단까지 우승 보너스를 돌렸다.

정규시즌 순위가 6위에서 1위로 수직 상승하면서 올 시즌 연봉도 달라졌다.

6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연봉이 상승한 변우혁은 “연봉도 올랐는데 우승 보너스도 많이 받았다. 손이 떨릴 정도였다. 캠프 갈 때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다는 이야기에 어떤 기내 서비스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다”며 웃었다.

우승 기억을 안고 우승팀 대우를 받으면서 새 시즌에 나선 KIA 선수들은 또 다른 우승을 꿈꾸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레알, 세계 첫 시즌 수입 10억유로 돌파

프로축구 2023-2024 시즌 1조5600억원 ‘2년 연속 1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세계 최초로 단일 시즌 수입 10억유로를 돌파한 프로축구팀이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23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가 발표한 ‘2025 풋볼 머니 리그’ 조사에서 2023-2024시즌 10억4600만유로(약 1조56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권 판매 등 경기일 수입 2억4800만유로, 중계권료 3억1600만유로, 상업적 수입 4억8200만유로로 조사됐다.

이로써 2022-2023시즌 8억3140만유로의 수입을 기록해, 앞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맨시티)를 제쳤던 레알 마드리드는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보다는 약 26% 늘었다.

2023-2024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레알 마드리드는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뒤 경기일 수입이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아울러 구단 관련 상품 판매 증가와 새로운 스

폰서십 유치 등으로 상업 수입도 20% 늘어났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의 맞수인 FC바르셀로나(7억6000만유로)는 홈구장 캄노우를 재건축하는 동안 규모가 작은 경기장에서 시즌을 치르면서 경기일 수입이 감소해 총수입이 5% 줄었고, 순위도 4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맨시티가 8억3800만유로로 다시 2위에 자리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PSG)이 8억600만유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7억7100만유로, 김민재가 뛰는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7억6500만유로로 3~5위를 나눠 가졌다.

아스널(7위), 리버풀(8위), 토트넘 홋스퍼(9위), 첼시(10위), 뉴캐슬 유나이티드(15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17위), 애스턴 빌라(18위)까지 EPL 소속 9개 팀이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상위 20개 클럽의 총수입은 전 시즌보다 6% 증가해 역대 최다인 112억유로에 달했다.

/연합뉴스